



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

리더십: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은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역자들 및 은퇴한 교회 사역자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제공하고, 장로교 관련 학교 및 대학에 다니는 소수 인종 미래 지도자를 육성합니다.



Presbyterian Church (U.S.A.)
Presbyterian Mission

'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은 네 번의 연간 특별 헌금 중의 하나입니다. 미국장로교의 전교회적인 특별 헌금은 21세기에 교회 간의 유대관계의 의미를 규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미국장로교의 다양성을 응집하여 공통의 관심사에 믿음의 행동을 집중시키고 이를 실행시킵니다. 이 헌금은 협력, 학습, 증거의 기회를 제공하며, 전체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동으로 증거하는 교회의 삶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12136-22-345



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

리더십: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요한복음 1:14

헌금하는 방법



교회를 통해서



pcusa.org/peace-global
에서 신용카드로



91999 번에
CHRISTMASJOY 라고
문자를 보내시거나
pcusa.org/christmasjoy
에서



온전한 선물.

‘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골고루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본 헌금의 50%는

현재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전,현직
교회 사역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정선재 목사는 가족들과 한국에서 살고 있다가, 애틀랜타 근처 에덴스 한국장로교회를 섬기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코비드 사태가 벌어졌고 이는 교회와 이 가족에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가족은 생계를 꾸리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2021년 12월 정 목사는 연금국 지원 프로그램과 노스이스트 조지아 노회에서 반반씩 지급하는 긴급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정 목사님을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좋은 모멘텀이 되어서 정목사님이 목회에 계속
은사를 발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루카스 맥쿨, 미국장로교 지원 프로그램 운영 매니저



본 헌금의 50%는

소수인종 공동체를 육성하는
장로교 관련 학교와 대학에서,
학생들이 신앙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도록 돕는 데에 사용됩니다.

사무엘 폴란코는 메놀 학교에서의 경험이 삶 속의 많은 장벽을 부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분열시키는 벽을 허물고 모든 이를 환영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메놀 학교에서 특히 선교 주간 동안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학년 친구들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이해와 관계를 구축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5일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세상 속에서 살아 있도록 가르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가 서로를 나누고 고립시키는 장벽이라고 생각하기에, 메놀 학교
는 하나님 피조물의 풍성함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도록 전심을 다하
고 있습니다.”

— 존 시틀러, 메놀 학교 교사

관대한 마음으로 헌금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조금씩 기부하면,
큰 기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